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음 10월 7일) 제193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23일 오후 어느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험이 종료됐다.

2018학년도 대입 수능

국영수 주요과목 어려웠다

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수학·영어 영역 모두 어렵게 출제됐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입시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국어와 수학, 영어에서 변별력을 비교적 고루 확보하면서 올해 수능부터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데 따른 변별력 저하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형(이과)과 나형(문과)으로 나눠져 치러지는 수학영역도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복잡한 계산이나 공식은 단순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보다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됐다. 가형에서는 로그함수 그래프와

됐다 분석이 나온다. 국어와 수학보다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지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평가원은 2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다음달 4일 최종 정답을 확정한다. 수능 성적은 다음달 12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도내에서는 전북 6개 시험지구 62개 시험장에서 총 2만 557명이 응시한 가운데 수능이 치러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준과 비슷... 국·영·수 변별력 확보 전북 최종 결시율 11.65%... 부정행위 3건 적발

문·이과 통합형인 국어 영역은 수험생들이 "어려웠다"고 평가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더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입시 전문가들은 국어영역 중 독서과목의 난도가 높아 변별력을 높였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독서과목중 환율의 오버슈팅(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현상)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을 다룬 문항(27~32번)과 디지털 통신시스템의 부호화 과정을 소재로 한 과학기술 문항(38~42번)이 어려웠

미분의 정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21번 문항, 나형에서는 20번(미적분), 21번(합성함수), 30번(미적분, 수열의 극한) 등이 융합된 형태에 수험생들이 문제풀이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문과생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은 9월 모의평가보다도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더욱 높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영역도 지난해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

됐다 분석이 나온다. 국어와 수학보다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지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평가원은 2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다음달 4일 최종 정답을 확정한다. 수능 성적은 다음달 12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도내에서는 전북 6개 시험지구 62개 시험장에서 총 2만 557명이 응시한 가운데 수능이 치러졌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험이 종료됐으나, 부정행위 3건이 적발 돼 해당 수험생은 시험이 무효화 됐다. 도교육청이 전체 결시율을 잠정 집계한 결과 전체 결시율은 11.65%로 나타났다. 이번 수능 응시자 중 최고령은 80대 남성이며 최연소는 10대 학생으로 확인됐다. 또 한 수험생은 자신의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는 일이 벌어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수능 이후 대입 정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다음달 대입 정시모집 지원전략 입시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정해은 기자

6차 산업 인증사업자 208개소

도, 올 3분기 신규 지정 포함... 전국 1위 유지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로 홍보 지원할 것"

전북도는 도내 10개소 6차산업 경영체가 2017년도 3/4분기 6차산업(융복합사업) 인증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 6차 산업 누적 인증 사업자는 208개소로 전국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6차 산업 인증 심사는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의 인증신청을 받아 도 6차 산업 지원센터 전문 컨설팅을 거쳐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주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6차 산업의 적합성 및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 지역농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신규 인증업체로 지정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농촌지역 소재여부, 융복합 여부, 지역농산물 사용여부,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 등이 다. 인증 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업체는 6차산업 인증표시 제품 부착, 우수제품 유통품평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등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며, 6차산업 온라인 사이트(http://www.6차산업.com)에 인증정보를 등록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

또한,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현장 코칭, 자금 지원, 새로운 유통 채널 구축 등 사업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유관기관(생물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등)과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상품 품질관리 및 유통 등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6차산업화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진심 사과 전체 수습과정 다시한번 돌아볼 것"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책임자 엄중히 책임 물을 것"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에서 유골이 발견됐는데도 은폐한 사건에 대해 공식으로 사죄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긴급히 발표된 시간에 대해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서 17일 오전 11시 30분경 세월호 선내 객실구역에서 수거된 폐지장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1차 현장 감식결과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했으나, 이를 수일이 지난 21일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22일야국과수에 감식을 요청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 말씀대로 미수습자 수습은 유족들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염원이니 만큼,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오늘 1차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알리고 추가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소상히 밝혀 국민들 앞에 보고드리는 한편,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한 번 전체 수습과정을 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재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추가 유해 발견 등 어떤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결코 자의적이거나 비밀스럽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고, 미수습자 가족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용역사업 예산 증액 실질적으로 필요인가?"

김종철 도의원, 지적
"전북 현안과 무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사진)는 23일 제 348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사에서 "용역사업 관련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이 오른 총 40억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40억이나 되는 세금을 쓰면서 전북 현안과 거리가 먼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고,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고령화 문제, 저출산, 청년실업 등 전북 현안과 관련 된 용역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의원은 "큰 돈을 들여 용역을 할 때에는 전북 현안과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주제로 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의 문자마식의 용역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일요일 신문 쉽니다.

매일 INDEX
6면 - 금융복지 컨퍼런스 성료

국립세종로시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